



유천호 강화군수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민선 8기 제9대 강화군수 취임,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 다짐



민선8기 제9대 유천호 강화군수가 1일 현충탑 참배와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취임식은 강화고인돌체육관에서 각계 기관단체장, 주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유천호 군수는 취임사에서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역을 병들게 하는 대립과 반목을 넘어 오직 군민이 행복한 강화군의 발전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군정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서 앞으로 4년간 만들어 나갈 강화군의 청사진을 밝혔다.

“첫째,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기반시설을 늘리겠다. 강화~계양 고속도로 강화기점 우선 건설, 국도48호선 마송~강화 간 도로 확장 및 교통 연결,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서울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까지 강화군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해 임기 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둘째,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겠다. 권역별 복합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마을 중심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마을등산로 정비, 생활형 휴식공원 추가 조성을 통해 여가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다 함께 누리는 복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최고 수준의 어린이 외국어 교육 지원과 키즈카페 확대 등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확대 운영, 제3장학관 건립,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및 장학기금 추가 조성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넷째, 미래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농·축·수산업을 육성하겠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미래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여 농업이 미래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외포지구에 어촌뉴딜사업과 연계한 종합 어시장을 건립하겠다.

다섯째, 생동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 판매망 구축, 식당·숙박시설 개선 등 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창업·일자리센터 기능을 강화해 신규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군사시설보호 구역 해제, 용도지역 재정비, 성어기 조업시간 연장, 어업한계선 확대 등 군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조정하겠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최고의 관광·힐링도시를 만들겠다.

근대문화유산을 재정비해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어재연 장군 충장사와 기독교역사기념관, 한겨레얼 공원 활성화를 통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산이포 평화공원, 강화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통해 역사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화개정원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새롭게 천문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함상공원 조성, 서도면 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강화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능수능란하게 또 빠르게 해결하라는 군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앞으로의 4년도 오직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만을 바라보며 없는 길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9대 강화군의의회 박승한 의장 인터뷰



“제9대 강화군의의회는 군민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으로, 7만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강화군의의회 의장 박승한

▲ 의장 당선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제9대 전반기 강화군의의회 의장 박승한입니다. 먼저, 3선 의원으로서 7만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되고 보니 영광스럽고 설레는 마음 한편에는 어떻게하면 군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책임감이 먼저 앞섭니다.

다행히도 이번 제9대 강화군의의회에는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등원하셨기에 함께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과거 의정활동을 경험삼아 민심을 존중하고 의원간 소통하며 집행부와 협치하여 강화군 발전과 군민 화합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만큼, 함께 힘을 모아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7만 군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강화군이 새로운 도약의 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의회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9대 강화군의의회 의장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루어 강화군민이 더 행복하고 강화군의의회가 더 성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특히, 의장으로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소통과 협력”입니다.

의원간 소통, 집행부와 소통, 군민과의 소통 등을 통하여 강화군 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로의 변화를 선도하는 의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군민·의원간 소통을 위하여 사랑방간담회, 현지의정활동, 의원연구회, 의정연수 등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여야를 떠나 강화군 발전을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한 집행부와 소통의 기회를 강화하겠습니다. 견제와 비판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치하여 강화군이 군정과 의정,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어 비상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간 반목과 불신이 아닌,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읍·면 제도를 활성화하여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의회가 군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충을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군의회의 활동으로 인해 군민의 삶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 군 의회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군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군청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중요의사와 예산을 심의·의결하며,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군 의회는 군 예산과 정책이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향키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청에서 정책수립과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물리적인 발전과 사업의 효용성에 무게를 둘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 반대운동을 벌이는 주민들도 적지않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직접 발로 뛰며 보고, 듣고, 공감할 수 있는 현장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집행부에 뜻을 전달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강화군의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며, 아울러 집행부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예산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집행에 있어서 낭비요소는 없었는지 또한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군의회가 의회의 본연의 역할을



의회개원 홍보사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 혜택은 분명 강화군민들께 돌아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 집행부와의 관계, 의회 구성원들에게 바라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와는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맹목적인 대립과 갈등구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의 발전과 강화군민의 행복 추구라는 공통된 대의를 위해서는 화합과 협치의 자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서로 돕지 않는다면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고 이것은 고스란히 군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이라는 의장의 임기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유천호 군수님의 강화사랑에 대한 열정과 진심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9대 의회는 여·야를 떠나 의원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민심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협치하여 강화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한편, 군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9대 의회는 사랑방간담회, 의원연구회 등을 활성화하여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제대로 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강화군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선택을 받으신 유능한 분들로서 의원간 소통을 강화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모든 군민이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의원 상호간,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화군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도로망 확충 등 8개 분야 116개 사업의 민선8기 공약을 보았는데 공약 대부분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들로서, 공약 이행은 곧 군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공약에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군수님과 집행기관에 올바른 여론전달을 해나가겠습니다.

지난 4년 강화군은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는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화군은 서울과 근접하면 서도 산과 바다를 접하여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며,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로써 그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지역입니다. 주말에 정체를 차려 불편만 해소해도 수도권 최고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화군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처음 의원직을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군의회 의원으로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 달려올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성원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겸손한 자세로 강화군의회 의장으로서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군민의 행복과 풍요로운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강화군의회가 강화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부여된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제9대 강화군의회는 군민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군민중심의 의정활동으로, 7만 군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군민의 다채로운 요구가 군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의 미래를 열어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강화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늘, 군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백하 기자

쾌적하고 안전한 휴가지 동막·민머루해변 개장

| 다음달 31일까지 개장 |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힐링 여름 휴양지 |



동막해변



민머루해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밀물 시에는 해수욕을 즐길 수 있고, 썰물 시에는 부드러운 흙의 감촉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갯벌에서 검은 개흙을 뒤집어쓰고 기어가는 칠게, 가무락, 쌀무늬고둥, 갯지렁이를 관찰할 수 있다. 해수욕과 갯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고, 서해의 낙조도 환상적이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 힐링 여름 휴양지인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을 다음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해변의 개장을 앞두고 해변에는 상황반을 편성하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했으며,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각종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해파리 방지 그물막, 부표 등 안전시설과 해변 및 주차장 정비, 샤워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동막해변과 민머루해변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동막해변 인근에는 민족이 영산 마니산과 한겨레 얼 체험공원, 함허 동천, 정수사 등 문화관광 유적이 있다. 민머루해변을 품은 석모도는 우리나라 3대 기도사찰인 보문사를 비롯해 미네랄 온천, 옛 염전부지 내 골프장, 석모도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이 있어 최고의 해양관광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군 관계자는 “올 여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많은 분들이 휴가를 해변에서 즐길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해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갯벌 생태복원으로 지역경제와 환경조성 만전

| 벌과 주민의 삶이 공존하는 환경조성 |

| 동검도 갯벌 생태계 복원 사후모니터링 최종보고회 개최 |



갯골풀 제거 및 관리사업 주민설명회(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9일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총장 박노준)과 함께 생태계의 보고인 강화도 갯벌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동검도 갯벌생태계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갯벌 수산자원 및 생태관광 현황 △복원지 퇴적환경 및 저서생태계 조사 △해수유통 및 갯골 형성 모니터링 △복원 효과 평가결과 등이 보고됐다. 해수유통으로 연륙교 북동쪽과 남서쪽 갯벌의 생태학적 특성이 유사지며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고 있으며, 갯골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 등 침·퇴적에 해소되고 자연스러운 갯골이 형성돼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무준 교수(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는 “해당 복원지는 1985년

연륙교가 건설되어 해수유통이 차단된 후 약 37년 동안 퇴적이 진행되어 온 지역이다”며 “복원사업 이후 해수가 유통된 지는 이제 5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갯벌복원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검도는 지난 1985년 강화도 본도와 연결되는 연육도로가 제방 형태로 건설돼 해수가 유통되지 않았다. 이후 침·퇴적에 따른 해수유통 저하, 바다 생물의 종 다양성 감소 등으로 인한 갯벌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고,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 2017년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제방형 연육도로를 해수유통형 교량으로 설치하고 동검도 갯벌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갯벌은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대형하구 갯벌로 보존가치가 크다”며 “갯벌 생태계 복원 등으로 생태환경 관광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 6.25전쟁 음식재현 행사

|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 되새겨 | 나라사랑 정신 고취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회장 박봉식)와 함께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6.25전쟁 음식 재현 및 시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총연맹은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6.25전쟁 당시 주식이었던 보리주떡밥과 개떡, 쭉버무리, 감자 등을 도시락으로 재현했다. 이어, 군민들과 함께 도시락을 나누며 전쟁 당시의 빈곤했던 시절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현재의 풍요로움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겼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시식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식 회장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당시의 어려움을 느끼고 6.25전쟁 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애국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당시 음식체험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강화군지회는 인간의 존엄,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바탕으로 안보의식 제고 활동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강화군 장학기금 150억 원 조성

|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지원 정책 | 2024년까지 기금 150억 원 직접조성 |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4년까지 장학기금을 15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강화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까지 기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현재 80억 원을 조성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40 명이 2억4천5백만 원의 장학금 수혜를 받았다.

장학금 지급 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의 자녀 중 우수한 학생으로, 고등학교 재학생과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이다. 선발된 고등학생에게는 50만 원, 대학생은 3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장학생 선발인원은 매년 14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70명)에서 170명(고등학생 70명, 대학생 100명)으로 확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 장학기금이 밑거름이 되어 우리군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정책의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중추적인 미래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NEWS

현장행정



보건소_찾아가는 백신접종



문화관광과_VR체험관



길상면_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역

인천시장 취임사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시장 취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

현충탑 참배,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어르신 배식봉사 첫 일정 시작 |
제물포 르네상스 시작점인 인천항 내항 8부두에서 ‘나눌래 시민축제’ 개최 |



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제1회 나눌래 시민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장인 내항 8부두는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시장의 제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유 시장이 원도심 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날 행사는 취임선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낭독과 해외자매도시 시장들의 축하영상을 비롯해 인천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 등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직접 작사한 ‘꿈의 나라’를 부른 가수 양하영, 인천이 낳은 유명가수인 송창식 등이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시민문화축제로 펼쳐졌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는 인천의 역사가 담긴 작품 전시회가 열려 함께 참석한 시민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유정복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이 7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취임 첫 날 수봉공원 내 현충탑 참배로 민선8기 인천광역시시장으로서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에는 시청으로 출근해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하는데 이어, 구내식당 근무자, 청원경찰, 미화원 등 현업부서 관계자들과 민원실·코로나19 근무자들을 차례로 격려했다.

또, 점심시간에는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배식봉사를 하면서 시민들과 첫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을 기념해 7월 1일 오후 7시부터 인천항

선사했다.

유정복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천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기회의 도시”라며,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힘차게 시작하고, ‘균형’, ‘창조’, ‘소통’ 3대 핵심 가치로 반드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균형’을 바로 세우고자 1호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제물포를 혁신 모델로 만들고, 촘촘한 교통망 연결로 ‘올웨이즈 인천2.0’ 버전을 다시 시작하는 한편,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과 청년 인재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둘째, ‘창조’를 바탕으로 인천을 세계 초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뉴홍콩시대를 통한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4차 산업과 미래형 신성장 산업 육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필’환경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셋째로 시민 속으로 들어가 시민 중심의 ‘소통’시대를 열어가는 한편,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초월해 언제든지 소통하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시민의 자랑스러운 일꾼이 되어 오직 시민만 보고, 인천과 미래만을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일하겠다”는 소신으로 300만 인천시민들과의 첫 인사를 마무리했다. - 권주형 기자



김포군수 취임사



제8대 김병수 김포시장 취임 “교통과 소통, 통하는 70만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포시민의 선택을 받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월 1일, 제8대 김포시장으로 취임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발생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한강중앙공원 취임식 대신 시 공직자만 참석한 간소한 취임행사로 민선8기의 첫발을 내딛었다. 7월 1일 오전 현충탑 참배에 이어 시청 참여실에서 개최한 취임행사에서 김병수 시장은 취임선서를 하고 향후 4년간 김포시의 비전과 시정철학을 밝혔다. 취임행사 직후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봉성제2배수펌프장을 방문하여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여 배수시설 증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민선 8기 통(通)하는 김포』를 향한 커다란 행보는 ‘교통 해소’와 ‘시민 소통’이라는 목표 아래 이뤄질 것이다”면서 “이를 위해 교통이라는 혈관을 뚫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시정의 제일 가치로 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시장으로서 공식일정에 앞서 장기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골드라인을 탐승,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체감하고 시정의 제1목표인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해결의지를 새롭게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8기 김병수 호(號) 시민약속사업, 이렇게 추진한다!

민선8기 김포시 김병수 호(號)의 공약사업은 총 7개 분야 64개 사업이다. 7개 분야는 ▲교통 ▲복지 ▲보육 및 청소년 ▲지역 및 생활 ▲공원 및 관광 ▲경제 ▲행정혁신이다.

교통 분야

민선8기 김병수 호(號)의 최우선 공약사업은 교통인프라 해결이다. 주요 사업은 ▲김포한강선(지하철5호선 연장) 착수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 실현 ▲인천2호선 고양 연장 등 총 12개 사업이다.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성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GTX-D 노선 김포~강남(팔당) 실현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추진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연구용역에 김포시 노선안을 반영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및 보육·청소년 분야

김포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지역내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8기는 대형종합병원과 어린이전문병원, 국제의료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내 의료수급체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대규모 개발사업지 내 유치 방안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강신도시 제2통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복지관 설치후 권역별 운영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해 권역별 테마형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및 생활분야

민선8기는 ‘프랑스의 자랑’ 풍피두 문화센터가 부럽지 않은 ‘CCP(센트럴컬처플랫폼)’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는 한강신도시와 양곡택지구 등 도시지역내 부족한 교육, 복지, 문화 등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외국어 학습관, 과학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걸포4지구 도시개발과 사업과 연계해 대형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장기동 고창근린공원 내 예정된 시립문화예술회관은 재정 확보방안을 마련중이다.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권역별 특화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해 하천변 산책로와 숲길을 연계한 수변숲길 네트워크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분야

수도권 최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부지 확보와 대규모 민간투자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민간투자자 협의 및 대상지역 결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애기봉 및 한강변을 중심으로 김포둘레길 조성, 조강포구 복원,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배후단지 등을 조성해 생태경관이 우수한 한강변 관광벨트를 만들어 나갈다는 계획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민선8기는 본격적으로 70만 김포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도시의 혈관이라 할 교통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교육과 복지, 문화, 의료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주형 기자



喬桐鄉校

교동향교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교동면 읍내리 148번지)
전화 향교 - (032) 932-6931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28호

교동향교 안내



1 대성전 2 서무 3 동무 4 서재 5 명륜당 6 동재 7 외삼문 8 제물고

교동향교 喬桐鄉校는 고려건국의 왕조인 왕건의 3대조 강충이 교동을 근거지로 외부문물을 교역하고 세력화했던 영안성(고북성)의 원지(原址)에 중국의 공사(公私)인들을 위해 고려태조원년(917)에 문묘(文廟)제행소(祭行所)를 설치하였으며, 고려예종제위2년(1107) 국자감(國子監)을 모태로 문묘에 교학처(敎學處)를 개설 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교동문묘를 수묘(首廟)라 칭하였고 과거제의 실시와 교학처(學校)의 정비과정에서 설치되기 시작한 현재의 향교는 조선시대 유교이념(儒敎理念)의 보급과 중앙집권체제의 유지를 위해 조선조 태조7년(1398)성균관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고려 인종5년(1127)에 화개산 북쪽 고구리 고읍에(현 향교골) 문묘와 교학(敎學)이 합사된 향교가 건립되었고 충렬왕12년(1286) 유학자 안향(安尙)이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공자와 그의 제자 10인의 초상을 가져와 전국 최초로 교동향교에 모셨다하여 교동향교를 향교중에 으뜸인 수향(首鄉)이라 칭한다. 조선조 인조7년(1629) 경기수영(京畿水營)이 현 읍내리 교동읍성에 설치되면서 국립교육기관인 향교도 영조17년(1741)에 교동부사 조호신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전통 행사



석전대제 (釋奠大祭)

유학의 성현인 5성위(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와 송국2현 및 아국18현을 모시는 추모 제례 행사로 교동향교의 석전대제는 전통에 따라 음력2월, 8월 첫정일(上丁日)에 춘제와 추제로 년2회 봉행한다.

* 석전대제는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어 있다.



기로연 (耆老宴)

옛 조선시대에 해마다 3월3일과 9월9일에 70세 이상 정2품관직을 지낸 문신들을 위해 궁중에서 베풀던 잔치행사를 재연하여 교동 관내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경로 효친정신을 고취하는 노인잔치의 날을 10월중 실천 한다.



분향례 (焚香禮)

매월 음력초하루(1일)에 향교 임원 및 유림회원이 참석하여 대성전에 모신 공자님(大成至聖文宣王) 신위전에 분향례를 행한다.

향교경내에서의 지켜야할 예절

1. 공수(拱手法) : 오른손으로 왼손엄지를 잡고 왼손은 오른손등을 가볍게 감싸 쥐고 단전(배꼽부위)에 댄다.(여자는 반대)
2. 대성전 단보 : 대성전 계단을 오를때는 공수의 자세로 눈길을 45도 전방을 주시하고 우족선발(右足先發)하고 좌합족(左合足)하며, 내려올때는 좌족선발(左足先發)우합족(右合足)한다. 방향전환시 주선(周旋)보행을 한다.
3. 통삼문을 오를때는 우측입문(右側入門)하고 좌측출문(左側出門)하며 중앙문(中央門)은 신(神)의 문(門)임으로 입출불가(入, 出不可)하다.

교동향교 배치도



대성전 大成殿

대성지성 문성왕이신 공부자(孔夫子)의 유덕을 추모하여 제사를 지내는 문묘(文廟)이다. 이곳에는 공부자의 위패(位牌)를 정중앙으로 오성(五聖) 송조(宋朝)의 2현(賢) 한국의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 공자상 화상 봉안



명륜당 明倫堂

유학(儒學)을 강학하던 강당이며 관찰사(觀察使)는 도내에서 우수한 유생들을 골라 매년 6월에 도회소(都會所)를 열고 문관(文官)을 보내어 시험을 보아 성적이 좋은 자는 생원(生員), 진사(進仕),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서무·동무 東廡, 西廡

우리나라와 중국 선현들이 배향되어 있던 곳. 현재는 강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서재·동재 西齋·東齋

평민이나 중인의 자제들이 숙식하며 공부하던 공간이었다.



내삼문 內三門

명륜당에서 대성전(大成殿)을 올라 가려면 이 내삼문을 거쳐야 하며 내삼문은 문묘(文廟) 안에 있어 내삼문 또는 신삼문(神三門)이라고 한다.



외삼문 外三門

문묘(文廟)를 봉심(奉審)하려면 외삼문을 거쳐야 하는데 외삼문은 문묘(文廟) 바깥문을 지칭(指稱)하는 말이다.



제물고 祭物庫

석전제기(釋奠祭器)를 비롯한 용처제례(用處祭禮) 비품(備品)을 보관하는 창고.



홍살문 紅箭門

능이나 궁전, 관가 등의 입구에 세우는 붉게 칠한 문으로 둥근 기둥 2개를 세우고 지붕 없이 붉은 살을 박았다. 홍살문 안에는 위대한신 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므로 경건한 마음으로 홍살문을 지나간다.

전통 예절 인성교육

공자상을 우리나라 최초로 봉안한 교동향교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향교를 전통유교문화 체험장으로 적극 활용, 지역주민 및 교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 해보는 교육의 터전으로 삼고,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정서함양과 바른 인성을 도모한다.



- 교육 대상 ▶ 교동향교 방문객 모두
- 일 시 ▶ 5월~11월 매주 토요일 10:00~16:00까지

● 교육 내용 ▶

- 01 서예교실 (우리집가훈, 서예쓰기교육)
- 02 선비교육 (전통복식체험 및 성현제례 체험)
- 03 예절교육 (예절 및 가치관 교육)
- 04 교동의 역사, 문화 강습교육
- 05 선진지 체험학습 교육 (지역 초,중,고 학생)



기고

弘益華鄉홍익화향 단군왕검 탄신제



고수진
강화향교 장의

古加島고가도 건너 거룻배에 막돌 하나
마리 참성단 여기 홍익세상 쌓았네.

가랫밥 지게 짐에 在世理化재세이화
鹽水염수를 막아 옥토를 일구었나니

均配균배 均利균리 순례자의 성통광명
일 만년 단군의 왕업 홍익화향 노래하네.

檀君一孫 致豫自矜: 단군일손 치예자금
弘益保泰 天下皆寧; 홍익보태 천하개녕
단군의 자손으로 한없이 기쁘고
스스로 자랑 삼는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변영시켜서
온 세상을 안녕케 함이다.

2022년 5월 31일 11시(음력 5월 초2일) 마니산 상설 공연장에서는 단군왕검 탄신 제4391주년 탄신제가 봉행되었습니다. 무려 3년 만에 봉행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막중한 주체적 행사에 사단법인 송조회 이사장이신 윤 문석님은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략,

“오늘은 우리민족의 國祖국조이신 단군왕검님이 세상에 오신지 439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조의 탄신일이야말로 온 나라의 축제일이자 國統국통을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기억하고 崇高승고한 뜻을 기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한다 해도 대다수 국민들이 아직도 단군을 神話신화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군은 신화를 넘어 우리민족의 뿌리이자 歷史역사입니다. 오늘날 국조 단군을 기리는 일은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바르게 복원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고유한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이 없는 국가는 미래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끊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계승, 발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략”

“승고한 뜻” 이는 바로 “弘益保泰홍익보태”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홍익정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면서 창조적으로 변영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天下皆寧천하개녕”은 즉,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지구인 모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해서 一家일가의 화목함으로 세계가 다 같이 잘살자는 포용의 평화주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神話신화이라며 손절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단군 국조의 탄신이야말로 진정한 개국의 의미를 담고 있거니와 개천의 축제일이기도한 것입니다. 강화도 한 고을의, 그것도 전적으로 사단법인 ‘송조회’에 봉행이 맡겨지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弘益人間홍익인간’? 『25시』의 루마니아 소설가 게오르규는 “홍익인간이라는 단군의 통치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법률이다.”라며 자신의 소

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대체 ‘홍익인간’이란 말이 무슨 뜻이길래 유럽의 이방인도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다’고 했을까요. 그것도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이념’을 언급한 것입니다. 필자의 능력대로 풀이하자면, “인간 세상에 널리 더해준다.” 유익하게 한다. 또는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백성의 부족한 살림살이를 충족시켜주는 일입니다.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로 삼으니 궁핍한 상황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요즘 같아선 매일같이 정치인들이 입발림에 지겹도록 듣는 소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신격화된 사회에서 백성, 민중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 짐승보다도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하물며 제물로까지 바쳐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神신을 위한 맹목적인 정통성과 권위의 상징에서 인간애로의 향로 변경인 것입니다.

모든 성인은 당대의 핍박받는 민중에서 ‘인간의 존엄’, ‘인격의 평등’, ‘생명의 외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임금 스스로의 영광을 백성의 눈높이 돌리겠다는 것은, 임금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해서, 고르게 보탬을 주고, 고르게 풍요를 누리게끔 하겠다는 홍익인간은 단군조선의 혁명적 개국사상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먼저 백성의 풍요를 설계해야 합니다.

홍익정신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이익을 약속하는 인간의 존엄과 민본의 평등 원칙입니다. 실천적 민주의 선형으로 볼 수 있는 태초의 이념이니만큼 “가장 위대하고 완벽하다.” 이방인의 지적은 매우 정확한 평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왜 단군왕검의 진실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주의이며, 민본사상이 싹튼 우리의 국조 단군 역사를 단군왕검 탄신제를 봉행하면서 반드시 부활시켜야 하겠습니까.

끝으로 최태영 선생의 『한국 고대사를 생각 한다』에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주장은 단군을 억지로 높이려는 게 아니다. 조상은 조상이지 왜 아니라 하는가. 역사가라면 적어도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단군을 국조로 모셔 왔음을 인정해야 하고 일제강점 이후 일본에 의해 단군을 부정하는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단군은 우리의 偉大위대한 祖上조상이며 나는 진실로 그 조상을 尊敬존경한다.”



강화읍 새마을남·녀지도자, 사랑의 집 고쳐주기 구슬땀

강화군 강화읍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회장 신봉기, 부녀회장 김은숙)는 지난 21~24일(5일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해 7가구의 곰팡이가 핀 벽지와 장판을 교체하고, 낡은 싱크대 등을 교체했다.

신봉기 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주신 지도자들께 감사 드린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서 집 고쳐주기 봉사의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7년동안 이어져가고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는 앞으로도 읍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매년 5~6가구(확대예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화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사랑 애♥ 집 고쳐주기

건강참살이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주의



독수산광대버섯(독버섯)_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마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덥고 습한 장마철은 버섯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돼 주변에서 버섯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버섯 발생 시기와 장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버섯은 1,900여 종이나, 이 중 먹을 수 있는 것은 약 400여 종(21%)이다. 독버섯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띠 뿐 아니라,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도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우므로 가능하면 농가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재배버섯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흰주름버섯(식용)_사진제공 : 농촌진흥청

층이 먹은 흔적이 있는 것은 해가 없다 ▲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식용이 가능하다 ▲ 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것은 식용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대부분의 독버섯 성분은 가열·조리하더라도 독성이 남아 있으므로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두통, 복통 등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 [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교동면_꽃동산 조성



교동면_조형물 설치

창의적인 디자인과 꼼꼼한 시공으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옥외광고는
성보광고

옥외간판
옥외광고
현수막
각종배너

대표 김영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171-1

☎ 032) 933-2611 HP. 010-3256-1611

안녕

안부 안전 안심

Re Action “세상을 잇는 강화군 자원봉사센터”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